

북스

Books

만약 정원의 화초가 당신을 이용하고 있다면?

욕망하는 식물 마이클 폴란 지음

‘우리는 작물을 심고 가꾸 수확한다.’ 그런데 이 명제는 과연 맞는 말인가.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옳지만, 주체를 작물로 바꿔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혹시 작물이 우리를 길들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한다면 말이다.

‘욕망하는 식물’의 저자이자 환경운동가인 마이클 폴란은 모든 생명체가 그렇듯 식물도 자기 종을 보다 많이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 인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저자는 사회사, 자연사, 신문, 전기문, 신화, 철학 등 장르를 불문하고 종합무진한다.

책은 지난 2001년 미국에서 출간된 뒤 인터넷 서점 알라딘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으며, 2002년에는 국내에 ‘욕망의 식물학’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적이 있다.

저자가 책을 쓴 것은 자신의 정원을 가꾸다 꽃의 주위를 원형거리던 꿀벌을 보고난 뒤다. 꿀벌은 꽃의 꿀을 빨아먹지만, 사실 꽃가루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꽃이 꿀벌을 유혹해 자신의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저자가 주목한 것은 인간도 꿀벌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사실.

이같은 식물의 욕망을 보여주기 위해 저자는 사과, 튕립, 대마초, 감자 등 네 가지를 택했다. 이들 식물은 각각 달콤함, 아름다움, 황홀함, 지배력 등으로 인간

에게 ‘길들여진’ 대표 식물이다. 저자가 이 네 가지를 선택한 다른 이유는 자신이 직접 정원에서 길러왔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의 숲에서 상인들이 발견해 실크로드를 따라 아시아와 유럽으로 퍼진 사과는 미국을 정복한 18세기 개척자들에게 정복의 징표와도 같았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사과를 선택한 이유는 단속이 심해진 뒤 실내로 옮겨졌던 대마초는 할로겐 전구 빛 아래에서 자신을 변화시킨 것이다.



한 때 큰 저택 한 채 가격과 맞먹었다는 튕립은 어떤가. 인간에게 아름다움을 자극하고 선사했던 튕립은 인간의 변덕(?)에 의해 부침을 거듭했다. 저자는 튕립이 부침한 역사를 따라

가면서 꽃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인간을 열광시켰고, 인간의 변덕은 어떻게 꽃의 변화에 작용했는지를 살펴본다.

대마초는 옷감 재료로 사용했던 식물이다. 불법적이긴 하지만, 물론 지금은 가장 비싼 식물 중 하나가 됐다.

저자는 대마초가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단 2~3%에 불과했던 향정신성 물질(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을 20%까지 끌어올렸다고 말한다. 단속이 심해진 뒤 실내로 옮겨졌던 대마초는 할로겐 전구 빛 아래에서 자신을 변화시킨 것이다.

전 세계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맥도널드의 프렌치 프라이는 감자의 지배력을 보여주는 사례다. 17세기 척박한 땅 아일랜드에서 시작된 감자의 지배력은 100년도 되기 전에 세계로 퍼진다. 미끈한 프렌치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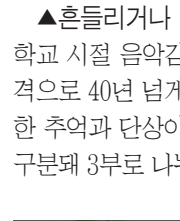
라이를 위해 ‘러셋 버뱅크’라는 감자 품종만 재배되도록 강요받은 감자는 독한 농약 살포로 인간을 위협하는 폐해를 경험해야 했다.

저자는 식물의 입장에서 쓰여진 이 책을 통해 ‘의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고 길가의 사과나무나 타자 위의 튕립 한 송이도 낯설지 않게 보일 것 같다’고 바람을 애기했다.

〈황소자리·1만4천900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로마 황제의 발견=‘서양-위대한 창조자들의 역사를 쓴 역사학자 이바르 리스너가 치밀한 고증과 상상력으로 로마 황제들을 되살려놓았다. 클레오파트라, 네로, 하드리아누스, 옥타비아누스 등 로마를 지배했던 이들의 이야기는 곧 로마의 역사였다. 〈살림·1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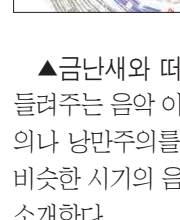
▲흔들리거나 반짝이는=음악평론가 김진욱의 에세이. 고등학교 시절 음악감상실에서 라벨의 ‘볼레로’를 들으며 받았던 충격으로 40년 넘게 음악을 업으로 삼고 살아온 저자의 음악에 대한 추억과 단상이 담겨 있다. 유년기에서 현재까지 시간 순으로 구분돼 3부로 나뉘어져 있다. 〈정신세계사·1만원〉



▲세밀화로 그린 양서과충류 도감=세밀화가 이주용씨가 그렸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양서류 21종, 파충류 31종 중 각각 16종, 20종을 담았다. 이색은 4년 동안 양서류와 파충류를 찾아 강원도에서 제주까지 살살이 뒤졌다. 〈보리·3만원〉



▲12번째 카드(전 2권)=제프리 디버가 탄생시킨 전신마비 법과학자 린컨 라임 시리즈 여섯 번째 범죄소설. 신비의 타로 카드와 그에 얽힌 100년 전 할렘가의 비밀이 라임의 추리로 하나씩 풀려간다. 시리즈는 전 세계 35개국에서 출간됐다. 〈랜덤하우스·각 권 9천원〉



▲청앵(靑櫻)=장흥 출신 시인·소설가 이대홍씨의 첫 소설. 댐 건설로 수몰 예정인 ‘자웅 유치’를 배경으로 한다. 1996년 수몰된 ‘장흥군 유치면’을 상징한다. 댐 건설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갈등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실천문학사·9천800원〉



▲신도 버린 사람들=저자 나렌드라 자다브는 인도의 절대적 신분제도를 거스르며 국제적 명성을 지닌 경제학자가 된 입지전적 인물이다. 저자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을 통해 불가촉천민이 감수해야 했던 배고픔과 무자비한 모욕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김영사·1만1천원〉

이원호씨 신작소설

‘챔피언’ 3권 펴내

‘밤의 대통령’으로 유명한 작가 이원호씨가 신작소설을 내놓았다.



‘챔피언’(전 3권)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지 못하는 스포츠, 권투를 소재로 다루고 있다. 저자는 주인공을 통해 치열하게 도전하는 삶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표현해내려 했다.

생후 열흘도 안 돼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입양한 부모마저 세상을 등지는 등 불행한 삶을 살던 장성기는 의로움과 슬픔을 이기기 위해 권투에 몰입한다. 이후 세계 챔피언이 되기까지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굴하지 않는 주인공의 삶은 운동 경기의 승리가 이전에 인생에서의 승리로 읽힌다.

〈랜덤·각 권 9천500원〉

詩人들의 詩想 반추해보는 수필 여행

‘나에게도 집이란 것이 있다면/미항사 감도다실 옆의 단풍나무를 지나/(중략)/무명지고리에 땀주머니 같은/두 칸짜리 해우소/꼭 고만한 집이었으면 좋겠다’(김태정 작 ‘동백꽃 피는 해우소’)

나주 출신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정경별(명지대 교수)씨는 해남 미항사에 도착하자마자 김 시인의 작품에 등장하는 ‘해우소’부터 찾았다.

현대화된 ‘화장실’만 있을 뿐 ‘행주치마’같은 해우소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정씨는 장마구를 속 애처럼 거둬들여 가던 미항사의 노을과 단청을 들이치 않은 소박한 나뭇결에 마음을 내주고 돌아왔다.

이어 해남의 시맥(詩脈)을 찾아 김남주와 고정희의 생기를 찾았고 그녀의 여행은 땅끝마을까지 계속됐다.

그리운 것은 문득 온다 정경별 지음

정씨가 펴낸 ‘그리운 건 언제나 문득 온다’는 마음을 울리는 시와 시인의 흔적을 찾아 떠난 여행 산문집이다. 김춘수의 시 ‘이중섭’ 연작을 기억하며 떠난 곳은 제주도 서귀포다. 네 식구가 뭍 부대끼며 울망졸망 살았을 한평 반짜리 쪽방과 이중섭 미술관을 둘러본 정씨는 그곳에서 이중섭의 뜨거운 예술혼을 생각하고 ‘국가도 이데올로기도 언어도 가난도 무릅쓴 이중섭의 사랑’을 묘사한



김춘수 시인의 작품을 가슴에 새긴다.

또 시 ‘뺨’을 통해 ‘말랑 말랑한 힘’을 이야기하는 함민복 시인의 흔적을 찾아 떠난 강화도 여행에서는 마을 전체가 유적지인 강화도의 이곳 저곳을 둘러보며 시인이 예찬하는 ‘뺨’에서 무언가를 찾기 위해 마음을 열어둔다.

그밖에 ‘봄날은 간다’를 읊조리며 떠난 충남 서천의 춘장대, 목포 출신 시인 노형림의 시와 함께 한 신안군 압해도, 장석남의 ‘경주 황룡사터 생각’과 나희덕의 ‘탑이 기러기처럼 많은’이 데려간 경주 황룡사터, 안도현의 ‘화암사 깨끗한 개 두마리’의 흔적을 찾아 떠난 전주 화암사까지 모두 14곳으로 그녀의 여행은 이어진다. 〈이레·1만1천원〉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영어교육의 새로운 대안 한국고중

한교 전화영어

기존 학습 위주의 교육방법으로 이론 영어 실력을 실질적인 영어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주기 위해 한교와우엘에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산하의 영어개발기관과 함께 최상의 방법을 개발하여 여러분에게 가시적인 성과와 만족을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어능력 향상의 최선은 1:1 전화영어수업이다”

매일 원어민과 전화대화를 통해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으로 영어공부의 새로운 대안입니다. 영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전화영어 학습법은 이런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한교전화영어는 고객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원어민 1:1 영어학습법으로 고객의 영어능력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교전화영어의 장점

- 원어민과 1:1 수업, 수업시간동안 지속적인 케어로 학습효율이 높다.
- 일반 학원과 달리 말할 수 있는 시간이 긴 효율적인 영어 학습방법이다.
- 학원으로의 이동시간 절약 및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 수강생의 레벨에 맞는 맞춤 수업이 가능하다.
- 교재이외에 레벨별 다양한 Topic 준비, 흥미를 가지고 학습이 가능하다.
- 우수한 원어민 선생님 확보 및 평가시스템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다.
- 영어회화, TOEFL, TOEIC, IELTS 등 다양한 종류의 강사가 있다.
- 현지적용 시스템을 통해 저렴한 수강비용 체계.

상담 및 문의: 1588-8010 www.waw05.com

영업사원 모집
문의: 062-526-0509 011-9222-4562

Gallery RODEM 직수입 안티크 전문매장

로템갤러리

가구의 격을 한층 높여 드립니다.

각종 고급 침대

진열상품 30%~최고70% 특별기획상품행사

소파 식탁

찾아오시는 길 1가목병원 - 백문동 - 남동주 - RODEM

대포전화: (062) 653-4022

물류센터: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 253-1